

中國·北韓 經濟協力關係의 現況과 展望

-나진-선봉경제개발지구의 운영을 중심으로-

오 덕 렬*

△ 目 次 △

- | | |
|--------------------------------|------------------------------|
| I. 中國·北韓 兩國 經濟協力의
보완성과 依存關係 | 經濟協力關係 |
| II. 豆滿江三角洲의 開發과 北韓의 | III. 나진-선봉개발지구의 現況과
發展 展望 |

I. 中國·北韓 兩國 經濟協力의 보완성과 依存關係

中國과 北韓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지만 자연계의 변화가 완만한 반면, 두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남북 양안의 경제 상황에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中國과 北韓은 모두 東北亞 지역에 속하는 개도국으로서 양국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가 일치한다. 비록 개혁개방 시기와 경제발전 속도가 상이하지만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이 한가지 점은 공통되고 있다.

中國의 吉林省과 遼寧省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北韓과 마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 튼튼한 공업기초와 지리적 우위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

및 친척관계의 우위를 갖고 있으며 상호 보완성이 비교적 강하다. 中國정부는 기업들이 대북한 경제협력과 무역거래를 발전시키도록 고무하고 있다.

吉林省은 中國의 주요한 상품알곡, 자동차, 석유화학공업 및 임업 생산기지이다. 이곳에는 150만명에 가까운 조선족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延邊朝鮮族自治州와 漳江市의 長白朝鮮族自治縣 등의 지역에 집중해 살고 있다. 양국 변경지역의 사람들은 내왕이 빈번하다.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北韓과 韓國에 친척관계가 있어 지리적·친척관계적으로 특수성을 띠고 있다. 吉林省은 中國과 北韓간의 경제무역 관계 및 변경무역에 있어서 출곧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여 왔다.

吉林省은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광물자원중 매장량이 전국 10위에 달하는 광물자원의 종류는 약 40여종에 달한다. 예를 들면 유모혈암, 석유, 몰리브덴, 금, 석탄 등이 있으며, 목재 비축량과 삼림면적은 전국에서 首位를 점하고 있는 바 기준 림지 면적은 608만헥타르로서 全省 토지면적의 32.4%를 점하고 있으며 목재 생산량은 전국 2위를 점하고 있다. 야생동물은 1,100여종이 있고, 야생식물은 중초약 등을 포함하여 2,700여종이 있으며 關東地區의 세가지 보배로 불리우고 있는 “인삼, 담비모피, 녹용” 및 영지, 천마, 송이 등 각종 귀중한 약재가 많이 나 이름을 날리고 있다.¹⁾

遼寧省은 中國 東北地域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남으로는 北韓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黃海와 渤海에 臨해해 있다. 남부의 遼東半島는 黃海와 渤海사이로 뻗어 있고 渤海海峽을 사이에 두고 山東半島와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그 남단의 大連市는 中國 북방의 중요한 연해항구 도시로서 현재 東北地域과 內蒙古 동부지역의 중요한 수출입 문호이다.

遼寧省의 토지면적은 14.59만km², 인구는 3,900여만명 있으며 자연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境內에는 광산자원이 특히 풍부하여 현대화 공업의 발전을 위한 독특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삼림자원과 수산물자원 및 동물자원

1) 中國丹東市정보협회, 「朝鮮經濟指南」(1995.3) 참조.

이 매우 풍부하여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의 전면적인 발전에 적합하다. 遼寧省은 또 北韓, 日本, 홍콩 및 러시아 등 세계 각 지역으로 통하는 항로를 개척하고 있다.

遼寧省의 丹東市는 遼寧省 동남부의 黃海와 압록강이 회합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北韓의 신의주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全市 총 면적은 1.9만km², 총인구는 281.6만명에 달한다.

丹東은 자원이 풍부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광산물은 57종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개발·이용되고 있는 광산물은 31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봉소와 玉石의 저장량은 모두 전국에서 1위를 점하고 있으며 금, 홍주석, 마그네사이트광, 연, 아연, 대리석 등의 저장량은 遼寧省에서 首位를 점하고 있다. 토지자원과 삼림자원 및 수자원도 매우 풍부하다. 딸기, 살구, 복숭아, 밤, 紅果 등은 丹東市의 유명한 지방 토산물이다.²⁾

丹東은 遼東半島와 朝鮮半島의 연계지점이며 또한 유럽-아세아 대륙의 주요한 육지 교통요로이다. 현재 丹東기차역에는 매일 20여대의 화물차가 드나들고 있고 연간 화물운송량은 30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연간 出境 차례수가 14만차나 된다. 丹東港은 韓國의 인천항과 330해리 떨어져 있어 中國과 韓國간의 해상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구이며, 게다가 현재 韓國에는 丹東籍 화교가 천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丹東의 대외개방을 위한 독특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상기 상황들은 모두 中國과 北韓간의 경제협력과 무역관계의 추진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들이다. 아래에 北韓측이 갖고 있는 우위와 유리한 조건들을 보기로 하자.

北韓은 산맥이 가로세로 뻗어 있고 하천이 많으며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지상지하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지하보배의 나라”라고 불리우고 있다. 조사된 광산자원은 360여종, 경제성이 있고 또 이미 공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여종에 달하고 있다. 北韓 경내의 광산물은 종류가 많고 저장량도 매우 풍부하다. 특히 마그네사이트광의 저장량은 36억톤 이상으

2) 위의 책.

로서 전세계 저장량의 절반을 점하고 있다. 이밖에 또 동, 아연, 연 등의 7 가지 광산물의 저장량도 전세계 10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의 공업용 주요 원료와 연료의 자급률은 70% 이상에 달하며 년간 약 10억달러에 달하는 각종 광산자원을 수출한다.³⁾

유색금속을 예를 들면 北韓은 세계에서 가장 큰 텉스텐 광산을 갖고 있다. 북한의 텉스텐광석은 성분이 복잡하다. 공업텅스텐광석은 주로 철망간 중석과 화중석이다. 이러한 화합물은 활동광 및 기타 광산물과 밀접하게 공생되어 있다. 北韓 북부의 텉스텐광석은 주로 만년 광상과 경수 광상에 집중되어 있다. 北韓은 자고로 “금이 나는 나라”로 불리우고 있다. 가장 큰 광상은 大榆洞광상으로서 평안북도 동창군에 위치하고 있다. 北韓의 석탄자원 비축량은 80억톤, 韓國은 약 16억톤에 달한다.

北韓의 수리와 수산물 자원도 매우 풍부하다. 朝鮮半島는 3면의 바다로 둘러 싸이고 동으로는 日本海, 서로는 黃海, 남으로는 朝鮮海峽과 臨海하고 있기 때문에 海域이 매우 크다. 동부 해안은 가파롭고 해안선이 비교적 곧으며, 해각과 항만이 매우 적다. 기존의 金策港과 東朝鮮港은 해풍을 피할 수 있고 항만이 깊어 훌륭한 항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해안은 해안선이 구불구불하고 은폐된 항구와 해만이 많은 바, 예를 들면 西朝鮮港 등은 대형 선박항구로 이용할 수 있다.

상기 北韓이 갖고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듯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中國과 北韓간에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음은 의심할 나위 없다.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의 中國과 北韓의 무역액은 각각 5.07억달러, 6.55억달러, 7.36억달러, 9.33억달러, 6.48억달러, 5.0억달러였다. 中國은 줄곧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3년 中國과 北韓의 무역액은 北韓 대외무역 총액 가운데서 36.3%를 점하여 비중이 가장 큰 한해였다.⁴⁾

中國과 北韓간의 무역은 두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첫째, 상호 보완성이

3) 中國조선외문출판사, 「朝鮮概觀」(1994) 참조.

4) 中國「國際貿易」(1996) 統計 참조.

강하다. 둘째, 운송이 편리하고 적시에 이루어지며 화물이 육로와 수로를 통해 많이 운송되고 있다.

北韓은 中國으로부터 주로 석유, 코크스 및 코크스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만 하더라도 전체 수입의 70.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경공업 원료와 기계설비, 면화, 원염, 석고 등 공업·에너지 급수품도 수입하고 있다. 中國은 北韓으로부터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시아, 강재, 연, 아연 등의 유색금속과 시멘트 및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北韓의 광산물과 수산물은 대중국 수출 가운데서 비중을 비교적 크게 차지하고 있다.

中國과 北韓간의 경제협력 관계에는 다각적인 경로와 다차원 무역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간 무역을 제외하고도 1982년부터 양국간의 전통적인 변경무역을 회복·발전시켰다. 北韓과 中國의 육지변경선은 1,300여km에 달하며, 中國의 吉林省과 遼寧省은 北韓의 함경북도, 자강도, 평안북도와 산과 강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는 바 쌍방은 풍부한 지방자원과 특산물을 이용하여 변경무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北韓은 中國의 吉林과 遼寧 지역의 변경항구를 통해 옥수수, 콩깨묵, 원단, 자동차, 재봉기, 자전거, TV, 화학비료, 비닐박막 등 농업과 경공업 및 화공제품을 수입하며, 중국에 수산물, 갈대, 생철, 무연탄, 누에꼬치, 잣, 베니어합판, 액화가스, 폐철강 등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바 쌍방의 무역 품목은 수백가지에 달하고 있다. 양국간의 변경무역은 협력영역이 광범하고 산업과 제품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하여 쌍방 변경지구의 발전을 유력하게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간 무역의 부족 부분도 보충하여 주었다. 현재 中國과 北韓간 변경지역의 무역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0년대 초부터 吉林省은 北韓과 변경무역을 전개하여 왔으나 70년대에는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82년부터 변경 바터무역을 회복하였다. 1991년부터 北韓과의 변경무역은 달러로 계산하기 시작하였다. 90년대에 들어 선후 양국간의 변경무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 中國과 北韓간의 변경무역액은 丹東, 圖們, 長白 세개 지역만 통계하더라도 3억달러에 달하여 中國·北韓간 무역총액의 55% 이상을 차지하였다.

中國과 北韓간의 변경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원인은 러시아의 대중국 제품수출이 北韓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은 중개항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한 측면으로 러시아와 中國은 北韓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무역적자 압력(北韓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적자를 샅감하고 있음)을 받고 있으며 北韓 정부와의 협정무역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른 외환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외환규제를 실행하고 있는 北韓은 정부 간 협정무역에서 원유 등 전략적 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무역의 방식을 통해 식량과 소비품에 대한 수입을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中國政府가 바터무역에 대해 관세를 절반 감면해 주는 우대정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관세가 높은 상품은 北韓을 대 중국 수출의 중개항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中國의 자동차 수입관세가 100%인데 北韓을 통한 바터무역의 방식으로 간접 수입하면 50%의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中國과 北韓간 변경무역의 번영은 中國이 관세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北韓이 「合資企業法」을 반포한 후 中國은 北韓과 평양, 신의주, 남포 등지에서 잇달아 합자기업을 설립하였다. 최근 들어 또 냉동기, 세탁기, 맥주, 식품가공공장 등 영역에 관한 경제기술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丹東市를 예를 들면 丹東의 공상기업은 北韓에 합자기업 5개를 설립하였는 바, 즉 遼寧省國際貿易公司丹東分公司는 北韓의 오륜무역회사와 합자로 평양에서 “青春館”을 설립하고 주로 中國과 北韓 양국의 음식, 담배, 술과 컬러사진 확대현상 등 업무를 경영하고 있다. 동시에 또 北韓국제합영회사와 합자로 신의주에서 “신의주과일야채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주로 훈장을 생산하고 있다. 丹東寬甸縣百貨公司와 北韓龍호무역회사는 평양에서 합자로 “평양송림거품제공장”을 설립하고 고, 중, 저급 거품제를 생산하고 있다. 丹東市糧油食品外貿公司는 北韓비봉무역회사와 남포시에서 합자로 “간식지養植公司”를 설립하고 현재 참새우 시험양식을 시작하였다. 丹東市元寶區 과학기술위원회와 庄河黑島鎮水產總公司는 북한봉화무역총공사 공업국과 신의주에서 합자하여 3,000㎡의 새우양식장을 소유한 “반도수산양식

공사”를 설립하였다.

1995년 말까지 中國側의 대북한 투자기업은 21개로서 협의금액은 약 4,000만 달러에 달했다. 北韓의 대중국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長春, 沈陽, 北京 및 廣州 등지는 계속하여 北韓 경제무역부문의 지점을 설립하고 있다.

II. 豆滿江三角洲의 開發과 北韓의 經濟協力關係

두만강하류 지역의 삼각지대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다국적 협력개발 지역이다. 자연과 경제지리, 역사·인문조건에서 주변환경 및 복지상황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개발잠재력을 갖고 있다. 두만강출해구는 日本海 서해안의 중앙과 東北亞地域의 경제중심이다. 인근해 있는 日本, 러시아 遠東연해 지역과 한반도 동해안은 環日本海 연해지역 항로의 輻射중심이며 또 蒙古의 출해구이기도 하다. 두만강출해구에서 출발하여 日本海와 津輕해협을 지나 대서양대안의 북아메리카에 이를 수 있다. 두만강의 출해 항구와 육지교통선의 건설은 環日本海地域에 유럽으로 통하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大陸橋를 제공할 수 있으며 連運港과 비교할 수 있는 또 한갈래의 국제교통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두만강하류의 삼각지대는 주로 吉林省 延邊朝鮮族自治州 동남부의 변경 지역(면적이 약 2만km²)과 러시아임해 변강지구의 남부지역(면적이 약 1.52만km²) 및 北韓의 함경북도(면적이 1.67만km²)를 포함하며, 총면적은 약 5만km²로서 珠江三角洲에 비해 약간 크다. 기존 인구는 300만명에 달한다.

圖們지역에서 大連을 거쳐 日本海의 니가타縣에 이르기까지는 거리가 3,400km에 달한다. 그러나 圖們지역에서 나진-선봉항을 거쳐 日本海의 니가타縣에 이르기 까지는 2,200km뿐이므로 1,000여km의 거리를 줄일 수 있다. 吉林省을 예로 들면 년 평균 1,000만톤에 달하는 물자를 수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약 500만톤의 화물은 일본무역과 관계된다. 그렇기 때문

에 吉林省으로 말할 때 나진-선봉을 이용하여 니가다縣에 이르는 길을 개척하는 것은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⁵⁾

두만강지역에서 中國, 北韓, 러시아 3국의 무역은 바터무역을 위주로 하며 무역 전체의 규모가 크지 않다. 1994년을 예를 들면 吉林省의 대북한 바터무역 총액은 1.1억달러, 대러시아 바터무역 총액은 약 1.4억달러에 그쳤다. 이 삼각지대내 현지 제품간의 무역은 더욱 적다. 쌍무적인 직접 투자와 기술인재 교류는 손을 꼽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극히 적다.

이미 개발되었어야 할 이 금삼각지대는 역사적인 요인들이 출곧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1990년 7월, 中國의 長春에서 개최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두만강개발 문제는 회의에 참석한 北韓, 러시아, 韓國, 蒙古, 日本 등의 학자들과 UNDP대표의 동의와 지원을 얻었다. 이리하여 두만강 “熱”이 일어났다. 이것은 中國 對外開放의 끊임없는 심화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일체화 및 지역집단화 추세가 초래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1995년 5월말 中國, 北韓, 러시아, 韓國 및 蒙古 등의 정부대표가 中國의 北京에서 국제 협력의 방식으로 두만강을 개발하는 데 관한 두가지 국제협정과 한가지 환경양해비망록을 체결한 것이다. 이어서 12월 6일 中國, 北韓, 러시아, 韩國, 蒙古 등 5국 대표가 UN총부에서 두만강지역의 개발에 관한 세가지 국제 협정을 체결하였는 바, 이것은 본 지역의 개발이 연구·논증단계에서 실질적인 개발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세가지 협정은 다음과 같다. ① 5개국 대표가 공동 서명한 「豆滿江經濟開發地區 및 東北亞開發協商委員會의 설립에 관한 협정」 ② 「豆滿江經濟開發地區 및 東北亞의 환경양해비망록」 ③ 中國, 北韓, 러시아 3개국 대표가 서명한 「豆滿江地區開發協調委員會의 설립에 관한 협정」.

이러한 協議들은 앞으로의 다국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법률 기초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협력과 협조의 가일층 강화에 주력하려는 5개국 정부의

5) “豆滿江三角洲의 다국적 개발협력은 실질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中國 월간지 「國際貿易」(1996.2) 참조

정치적인 약속으로 되었다. 동시에 協議는 5개국 정부가 나라와 나라간 관계의 국제화표준을 지도하고 특히 각국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고 평등호리, 근린우호의 기초위에 국제협력을 전개하며 국제협력을 위한 協調와 協商機構를 건립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원칙의 확정은 향후 이 지역의 협력을 위해 법률 기초와 조직적인 구조를 마련하여 주었다. 中國은 두만강지역의 협력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協商一致와 協力開發, 共同受益, 공동번영의 원칙하에 향후 지속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두만강개발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中國의 瑪春변경 경제협력지구는 이미 초보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다. 吉林省에서 조직 편찬한 「두만강하류지역의 종합개발계획 대강」은 이미 中國國家計劃委員會의 비준하에 시행되고 있다. 瑪春과 北韓 변경의 7개 항구는 모두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中國-러시아 변경항구의 기능도 강화될 것이다. 양국은 현재 국제연락 운송 문제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瑪春市는 최근에 또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지역의 변경개방과 출해구를 개통하는 등의 대외개방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① 러시아의 현황에 대비하여 러시아가 크拉斯지노역에 일정 자금을 투입하여 훈춘-크라시지노역의 여객(제3국 여객을 포함) 통행을 정식으로 개통하도록 독촉 하며 11월에 “瑪馬鐵道”를 개통한다. ② 러시아 및 韓國과 러시아의 나호드카항구를 이용하여 中·韓 양국과 기타 나라의 여객화물을 중개·운송하고 다국적인 유람항로를 개통하는 데 관한 협력의향을 협의한다. ③ 러시아의 하쌍지역과는 中國의 노무와 기술을 수출하여 러시아경내에서 무공해 야채를 심고 목축업 생산기지를 발전시키는 데 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홍콩의 亞洲集團公司와는 圈河에 2만km²의 자유무역지구를 설립하는 데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다. 또 北韓의 나진-선봉시와는 圈河-元丁里의 임시적인 내왕에 관한 협의를 달성하였다. 圈河는 瑪春市 두만강하류의 敬信鎮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을 사이에 두고 北韓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구와 마주하고 있다. 中國과 北韓간 邊境公務通路의개통은 東北亞 변경의 개방도시인 瑪春과 나진시가 우호적인 거래와 경제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琿春은 北韓의 나진-선봉과 가까이 인근해 있는 지역이다. 琿春地域의 개발은 3여년이란 시간을 경과했으며 그 동안 琿春市의 기초시설은 갈수록 완벽해졌다. 년간 석탄생산 총설계능력이 405만톤에 달하는 琿春礦務局은 현재 200만톤의 석탄생산능력을 기록하고 있다. 설계기대장치용량이 140만kW가 되는 琿春發電所는 10만kW의 기조 2대로 발전하고 있으며 년간 발전량은 13억 kWh, 기대장치 용량이 60만kW에 달하는 2기공사도 이미 국가계획에 들었다. 동북철도망과 연결된 총길이가 65km에 달하는 琿春-圖們철로가 이미 개통되고, 琿春과 러시아 항구를 연결하는 철로도 금년중에 연결될 것이다. 琿春과 110km 떨어져 있는 延吉空港은 확장건설을 거쳐 앞으로 10여갈래의 국내항로가 개통될 것이며 국제항로 개척도 계획중에 있다. 용량이 12만문에 달하는 프로그램제어전화공사는 현재 건설중에 있다. 도시철로, 급수, 물공급 및 여러가지 서비스시설도 개발건설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나진-선봉의 개발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개발구건설이 초보적인 규모를 이루고 있다. 3년동안의 누계 투자액은 3.3억달러에 달하며 가동구 및 변연지역의 3.5만km² 범위내에 보세창고, 표준 공장건물, 2차변전소, 열공급소, 수도물공장 및 학교, 병원, 주택 등 생산과 생활서비스를 위한 부대시설을 건설하였다. 현재 개발구내에 등록된 기업은 249개, 도입된 공업항목은 30개로서 총 투자액은 78,558.65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 가운데 외자는 7,759.35만달러, 내자는 14,156.12만원이다.⁶⁾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추세도 양호하다. 1995년말까지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74개로서 투자 총계약액이 14,751.47만달러에 달하고 있는 바, 그중 외자가 8,624.11만달러이며 주로 韓國, 홍콩, 日本 등 12개 나라 및 지역과 관련된다. 지난해 평균 외자계약액은 116.54만달러, 현재 투자액이 200만달러를 초과한 항목은 17개나 된다. 적지 않은 외국기업가들은

6) “琿春開發區의 발전과 전망,” 中國「연변일보」, 1996.2 참조

갈수록 완벽해지고 있는 투자환경과 투자잠재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1995년 10월 5대주의 31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400여명의 외국기업인과 2000여명의 국내외 손님들이 延邊에서 주최한 '95中國·兩岸·三地·對外投資商討會에 참가하여 142가지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투자 총액은 95,456.08만달러에 달했다. 瑪春의 투자계약액은 延吉市를 제외하고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는 바 이것은 瑪春 및 두만강지역의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瑪春 및 두만강지역의 개혁개방을 위한 양호한 발단과 토대가 구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延邊지역과 韓國간의 무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나진항을 연결시키는 정기 해운항로가 이미 정식으로 투입·운영되고 있다. 나진항은 延邊과 韓國의 무역 중개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부산-나진 항로는 中國籍의 화물운송 컨테이너선박이 책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는 매달 왕복 2회의 정기운항을 한다. 이 항로는 吉林省 延邊運輸會社와 韓國특수선박회사의 출자로(각각 50%) 설립된 동명해운회사가 책임진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연변운송회사에 70만달러의 자금을 배정·지원하여 주었다. 이 항로가 가동된 후 韓國企業은 延邊의 圖們地域에 대한 무역과 투자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머지 않아 그들의 서비스범위는 日本의 서해안 항구까지 연장될 것이다.

北韓은 두만강3각주 가까이에 위치한 나진-선봉지역에 자유무역개발구를 설립하였다. 이 조치는 中國 특히 吉林省延邊地域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극히 유리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中國과 北韓간의 경제 협력관계는 필연적으로 가일층 촉진될 것이다. 다른 한 측면으로 반드시 간파해야 할 것은 瑪春과 圖們 등 지역의 공업과 농업의 발전 및 풍부한 자연자원이 나진-선봉지역과 커다란 상호 보완관계를 갖고 있는 동시에 이곳에 많은 조선족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등의 여건들이 필연적으로 나진-선봉개발지구와의 호조협력 관계에 유리할 것이다. 나진-선봉개발구의 설립은 또 日本海지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열에 부응된다. 蒙古는 亞細亞의 腹地에 위치한 내륙국가로서 출해구를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두만강

하류지역의 개발은 蒙古가 中國의 철도와 러시아-北韓의 항구를 거쳐 日本海에 진입하여 연안의 각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蒙古는 동북 3성에 대한 개발과 日本海로의 진입을 단기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각 주변국들은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다국적인 공동개발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은 모두 環日本海地域 경제 협력의 대추세에 속하며, 中國과 北韓, 러시아 등 나라가 공통된 개발 요구와 개발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다국적 개발을 실현하는 것은 필연적인 방향이다.

1995년 9월말 北韓對外經濟協力促進委員會는 北京의 國際貿易센터빌딩에서 “두만강삼각지대의 개발과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국제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韓國외에 미국, 독일, 핀란드, 러시아, 중국, 그리스, 호주, 일본 및 홍콩 등의 국가와 지역의 대표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이것은 北韓이 처음으로 北京에서 개최한 섭외 활동이다. 北韓側은 동 자유무역지구에 현재보다 더욱 우월한 투자여건을 제공할 것이며, 잠재력이 있는 투자자들을 요청하여 다음해 5월에 자유무역구에서 개최하는 유사한 세미나에 참석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동시에 동 지역의 소득세율은 14%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프로젝트의 소득세율은 10%에 그친다고 제시하였다. 투자 營利후 첫 3년은 면세기간으로 정한다. 이 자유무역지구는 23개 국가와 지역의 약 2억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약 3,500만달러가 현실화되었다. 北韓측은 현재의 투자액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불허하면서 향후 더욱 많은 자금을 도입할 것이며 이 자유무역구의 개발은 30억달러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北韓代表는 北韓의 투자환경을 예측할 때 지난날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의 긴장된 정치와 군사 정세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었는데 北韓과 미국간의 회담이 진전을 이루하고 北韓과 日本의 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현재는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北韓代表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北韓의 불안정 정세 관련 선전보도를 쉽게 믿지 말 것과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이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유리한 기회를 이용하여 北韓의 첫번째 경제개발지구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것을 호소하였다.

III. 나진-선봉개발지구의 現況과 發展 展望

나진-선봉개발지구의 면적은 745km²이다. 나진-선봉 및 청진은 무역항 구로서 년간 화물처리량은 9,000만톤에 달하고 있는 바, 앞으로 거래량은 1억톤을 초과할 것이다. 개발지구내에는 철광석, 알류미늄, 목재, 약재 및 수산물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백두산, 칠보산 등 명승지는 앞으로 국제 여행구로 개발할 것이다. 나진-선봉항구는 현재 1만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갖고 있으며 2000년에 이르러서는 15만개로 증가될 것이다. 이 지구의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과 법규가 현재 제정, 개선 및 반포되고 있는 바 投資法, 合同法, 金融銀行法, 外換法, 稅法, 勞動法, 土地法, 자유항구 및 관련 입법과 법령 등이 있다.

나진의 항구건설중, 러시아와 일본의 투자로 설립된 새로운 산적화학비료공장이 이미 가동되었다. 새로운 야금제품가공공장과 컨테이너공장도 건설중에 있다. 선진적인 석유가공기술을 운용한 선봉기름제련공장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이 공장은 스위스의 한 회사와 협력하여 러시아의 석유에 대해 매우 큰 흥미를 갖고 있다. 러시아변경에 위치한 선봉공항과 중국과의 협력으로 된 헬기공항도 곧 완공된다. 금융분야에서 北韓은 네델란드 ING은행 및 홍콩 PEREGRINE은행과 본 자유무역지구에 연합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데 관한 협의를 달성하였다. 은행본부는 앞으로 평양에서 나진-선봉지구로 옮길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경우, 비록 이곳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기업들이 아직은 매우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만 더욱 실제적인 변화는 나진과 韓國의 부산 사이에 이미 정기적인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척되었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1일 첫 컨테이너선박이 나진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 매주 1회씩 통항한다. 이것은 中國과 韓國간의 무역으로서, 延吉과 琿春에서 화물차로 컨테이너속에 넣은 화물을 나진으로 운송한 후 그대로 부산에 보

낸다. 北韓은 다만 항구 사용비만 벼는 것뿐이지 절대로 北韓이 韓國과 주기적으로 무역을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北韓의 항구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와 韓國회사의 이동식 컨테이너기증기를 볼 때면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 北韓은 대외로 창구를 개방하였다.

기초시설분야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中國과의 국경운수연락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건설이 가장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였다는 것이다. 中國의 瑾春市를 연결하는 광섬유통신은 1995년 6월말에 완공되었고, 새로운 전기화철도 건설도 중국의 두갈래 철도와 통하는 철도선상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두갈래의 새로운 고속도로가 이미 준공되어 한갈래는 개발구내의 元丁으로 통하는 두만강변경다리와 통하고 있다. 元丁橋의 再開放件에 관해서는 이미 중국과 협의를 달성하였다. 초보적인 협의에 의하면 러시아변경 철도다리로는 머지 않아 자동차가 통하게 될 것이며, 1995년 10월 한 외국상무여행팀이 나진－선봉지구를 방문하였다. 이 팀은 中國측의 허락을 받고 瑾春과 延邊을 걸쳐 元丁橋를 건넜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나진에서 부산에 이르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는 해운회사는 또 延吉에서 圖們市에 이르기까지의 육지운송을 책임지며 나진항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元丁橋가 재개방됨에 따라 이 서비스는 의심할 나위 없이 瑾春과 나진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 두가지 조치는 中國의 東北에서 日本과 韓國에 이르는 운송비용을 절반 감소시켜 주는 동시에 운송 시간을 크게 줄임으로써 延邊地域 특히 최근 들어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瑾春市에 커다란 우위를 제공할 것이다. 과거에 공산품과 건축재료 및 과일과 야채, 곡물을 포함한 식품들은 大連 혹은 燕口港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길을 많이 에들고 육지운송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현재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지나 나진항, 韓國, 日本 및 아세아－태평양지구의 기타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러한 운송방식을 통해 吉林省과 黑龍江의 東부는 매년 옥수수와 벼 및 콩을 300만톤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日本에서 東北 3성에 수출되는 설비와 화물이 더욱 빠른 기간내에 도착할 수 있어 운송비용이 더욱 절감된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구내에 살고 있는 인구는 현재 약 14만명에 달한다(나진시만 약 6만명). 이 개발지구의 전체 인구는 30만명, 앞으로 100만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개발지구 주민들의 지식수준은 매우 높다. 1년간의 學前 교육과 10년간의 학교교육을 포함한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1년제 의무교육이란 바로 신세대들을 위해 자립할 나이가 될 때까지의 기간에 중등일반교육을 보급시키는 무료교육을 말한다. 나진-선봉시에는 인민학교가 30여개, 고등중학교가 40여개 있으며 취학률은 100%이다. 지역주민들 가운데는 문맹이 없으며 누구나 모두 일반지식과 기초기술 지식을 갖고 있다.

나진-선봉지구에는 농업전문학교, 造船전문학교, 화학전문학교와 해운대학 등의 학교가 있다. 나진-선봉시에는 일하면서 다니는 공장대학들도 있다.

주민의 직업별 구성을 볼 때 나진지구는 70%가 로동자이며, 사무원은 20%, 협동농민은 10% 미만이다.

나진-선봉시의 주요 공업으로는 전력, 원유화학, 선박, 경공업 등을 들 수 있다.

승리화학연합기업소는 원유 처리 및 원유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년간 원유처리능력은 200만톤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수산업과 해상운수의 발전을 위한 선박수리공장과 차수리공장도 있다. 선박수리공장은 여러가지 화물선과 고기배를 건조하며 대형 및 중소형 선박도 수리한다. 이 공장들은 년간 40~50척의 1만톤급 선박을 수리할 수 있다.

선봉군에는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중유발전소가 있는데 이 기업은 승리화학연합기업소에서 나오는 중유를 연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출력은 20만kW에 달한다.

이 지구는 목재가공 공업이 발달하였다. 두만강침목재공장을 비롯한 목재가공 공장들에서는 두만강역을 통해 나온 통나무와 中國에서 채벌한 통나무들을 가공하여 침목과 간목을 비롯한 여러가지 목재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들의 제재와 운반작업은 전부 기계화되어 있다.

개발지대에는 류철니켈광과 황동광 및 화강석을 캐내는 광산들이 있고 질좋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시멘트공장과 벽돌공장, 유리공장들이 있으며 식료품공장, 소비재공장, 모피가공공장, 피복공장을 비롯한 50여개의 지방 산업공장들도 있다. 이 공장들에서는 철제일용품, 도자기류, 피복가공품, 모피가공품, 물고기가공품, 식료품, TV부속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이에 완성할 계획이다. 2000년까지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철도, 도로, 항만 등 하부구조망을 개건하거나 현대화하여 개발지대가 국제화물중계수송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나진-선봉지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서의 면모를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한다.

미래를 전망할 때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21세기의 세계경제발전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국제교류거점으로 건설될 것이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구는 수출가공기지로서 그 특징에 맞게 다음과 같이 10개 공업구를 구성한다.⁷⁾

① 신흥공업구

신흥공업구는 나진시 신흥동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이 200여정보에 달한다. 이곳은 나진항 및 그와 연결된 편리한 교통망,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고 있는 바 이것은 이 지역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줄 것이다. 신흥공업구는 始發지구로서 먼저 투자하는 투자들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업종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공업대상을 배치하도록 한다.

② 후창공업구

후창공업구는 나진시의 후창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 100정보에 달한다. 이곳에는 주로 식료품 생산기업들을 배치하며 보세창고구역도 설치할 계획이다.

③ 창평공업구

창평공업구는 나진시 창평동의 기존 선박 수리·건조기지에 설립되며 부

7)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안내서」(平壤 : 北韓對外經濟協力推進委員會, 1996.

9) 참조.

지 면적은 40정보이다. 이곳은 기존의 선박 수리·건조기지를 이용하여 2000년까지 5만톤급 선박수리도크를 건설하며 그 이후에는 10만톤급까지의 배수리 및 건조 기지를 꾸리고 해상구조대를 배치할 것으로 전망한다.

④ 백학공업구

백학공업구는 선봉군 백학리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200여정보이다. 이 지구에는 주로 전자자동화공업부문의 대상들이 배치된다. 앞으로 백학공업구는 종합적인 전자자동화공업지구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⑤ 관곡공업구

관곡공업구는 나진시 관곡동을 중심으로 하는 550정보의 부지면적위에 설립된다. 여기에는 주로 원유가공공업과 석유화학공업부문의 공장들을 배치하게 될 것이다.

⑥ 홍의공업구

홍의공업구는 선봉군의 홍의노동자구를 중심으로 하는 180정보의 부지위에 설립된다. 이 지구에는 주로 자동차 조립 및 부속품생산 공장들과 경공업공장, 기업들이 배치된다.

⑦ 옹상공업구

이 공업구는 선봉군 옹상노동자구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이 200정보이다. 이곳에는 주로 목재가공공업과 건재공업부문들의 대상들이 배치된다. 향후 超大型 선박수리기지로 발전할 전망이다.

⑧ 사회공업구

사회공업구는 선봉군 사회리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은 350정보이다. 이곳에는 주로 자동차 조립과 부속품 공업 부문의 대상들을 배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⑨ 우암공업구

우암공업구는 선봉군 우암리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은 300정보이다. 이 공업구에는 서비스부문의 종합경공업공장들을 배치한다.

⑩ 원정공업구

여기에는 변강무역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공업공장들과 첨단과학기술분야의 공장들을 배치하게 된다.

이밖에 나진시 중심지구와 선봉군의 주민지대에 동명, 청계 중소공업구를 비롯한 공업구를 꾸리고 여기에 식료품, 소비재, 피복, 신발, 수산물 가공 등 경공업공장들을 배치하게 될 것이다.

北韓정부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투자대상 종합목록을 발표했는데 공업투자 대상은 101개, 하부구조 투자대상은 15개, 서비스투자 대상은 3개였다.⁸⁾

1996년 9월 北韓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구에서 투자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원래 참가키로 했던 한국기업계와 정부 및 전파매체의 50여명이 참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개 국가와 지구의 470여명(日本은 140명이 참석)의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예기했던 효과를 이룩하였다. 회의는 北韓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UNDP, UNIDO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금번 회의의 상담항목은 16건, 투자협의 금액은 약 8.4억달러에 달했으며, 실제 투자항목은 6건; 실제 계약금액은 약 2.8억달러였다. 투자건설 항목으로는 통신기계설비공장, 오토바이공장, 완구공장, 병원 및 호텔 등이 있었다. 北韓은 또 덴마크와 쌍무적인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주목을 끄는 것은 금번 상담회 참석자 가운데서 中國吉林省延邊朝鮮族自治區와 中國 관련 부문의 대표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나진-선봉지역의 개발분야에 中國과 北韓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많음을 설명해 준다.

두만강지역의 국제협력항목에 관한 정부간 제2차 회의는 금년 10월 21 ~22일 北京에서 개최되었다. 中國, 北韓, 러시아, 蒙古 및 韓國의 정부대표단과 UN개발계획서의 관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中國, 러시아, 北韓 3국은 또 변경무역과 도로·철도 등의 문제에 관해 토론하였다.⁹⁾ 회의참가자들은 두만강지역의 국제협력은 東北亞地域의 경제발전에 유리하다고 인정하였다. 회의는 두만강지역의 개발계획을 계속하여 지지하고, 정식으로 日本政府를 두만강지역 국제협력항목의 정부성원으로 요청하기로 결정하

8) 「나진-선봉自由經濟貿易地帶投資對象 綜合目錄書」(平양: 北韓對外經濟協力推進委員會, 1996.7).

9) 中國新華社, 「每日電訊」, 1996.10.23 참조.

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금번 회의는 유럽과 亞細亞 일부 국가의 자금을 흡수하여 본 계획의 시행 가능성을 모색하는 각도에서 매우 중요하다. 日本,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델란드, 美國, 호주, 아이스란드, 스웨덴, 프랑스와 亞細亞銀行도 대표를 파견하여 관찰원의 신분으로 회의에 참가시켰다.

상술한 사실로부터 볼 수 있듯이 현재 갈수록 많은 국가와 지역들이 두 만강삼각주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北韓의 대외경제 협력사업이 점차 확대·심화됨에 따라 나진-선봉자유무역지구의 개발사업도 필연적으로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들은 北韓정부가 UN개발계획서의 지도와 관련 부문의 협조하에 기정된 나진-선봉자유무역지구의 개발과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